

민주 '예산국회' 등원 고민스럽네

광주·전남 단체장 등 등원 압박 부담

박지원 투쟁·예산 병행처리 주장도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일정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 안팎에서 예산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예산 심사에 즉각 참여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즉각적 대응,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비준 무효화를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예산 국회 파행이 길어지

면서 장내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민주당의 예산 국회 등원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부담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1일부터 자유선진당과 함께 비정점부문 예산심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을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낮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광화문에 나가자”며 ‘주국야광’(晝國夜光)을 주장한 뒤 ‘국회가 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데다 내년 복지·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만은 병행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시한(2일)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애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한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행정여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만큼은 결코 날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예산 심사 재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면, 이번 만큼은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게 될 것이다.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국회에 참여할 명분을 쓸으면서 여당의 예산안 합의처리에 대한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일시: 2011. 11. 30

· 장소: 국회 본청앞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애당, 시민단체 회원 등이 3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무효화 5000인 선언 기자회견

/연합뉴스

“한미FTA 원천 무효”

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가 라운지

김성곤, 3일 여수서 출판기념회

민주당 김성곤(여수갑)의원이 3일 지역구인 여수에서 ‘평화-일치와 상생, 희망을 향한 동행’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주승용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저서는 김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작성했던 각종 기고문, 서신, 연설문 등을 엮은 것으로 ‘도(道)의 정치’로 대변되는 김 의원의 사상과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임 변호사는 저서에 자신의 30여 년의 검찰 생활과 밭으로 뛰며 보고 들었던 지역민심을 담았다. 그는 “두 밭을 골목길을 걸으며 민심에 공감하는 정치야 말로 더 나은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당내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당 사무처장 위성부씨

민주당은 지난 30일 광주시당 사무처장에 위성부(52) 중앙당 민원국장을 발령했다. 전임 오병현 사무처장은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전보발령 됐다.



장홍 출신인 위 처장은 새천년 민주당 정책실장과 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 민원법률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인화 “광주시 유아교육 뒷걸음질”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인화 의원은 30일 “시 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중심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유아교육과 관련해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유아와 교원의 체험활동, 연수 등을 총괄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2억7000여만원이 삭감된 5억9000여만원이 반영됐다”며 “이는 수십억을 들여 지은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야권통합 절충점 모색

오늘 당무위 … 11일 전대 소집공고 방침

야권 통합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절충점을 모색하면서 연내 통합정당 출범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야권통합 추진에 대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당 안팎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12월 11일을 목표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 절차에서 이견을 좁혀야 할 게 있으나 당내 합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선통합 결의 후지도부 출신)에 대해 ‘혁신과 통합’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제 단체들로 민주당 일정에 맞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를 해왔다”며 “특히 한국 노총은 이런 일정에 맞춰 12월 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일 당무위원회를 열

어 전대준비위를 구성하고 11일 전대 소집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장선 사무총장은 이날 “새 지도부 경선은 12월 31일 통합 정당 전당대회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11일 전대를 준비할 전대준비위의 기본적인 목표는 협동·조합·합의해서 다음 수입기관에서 통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전대 준비와 별도로 혁신과 통합 등과 결합을 등을 논의할 협상팀을 꾸려 ‘트트랙’으로 통합전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등을 통합 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거두고 있지 않고 있어 결집들이 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통합 관련 의사 결정 위원회인 수입기관의 역할을 두고 통합정당 당사자 간 협상 내용 추이 기구라는 손 대표 층 입장과 통합 협상 전권을 행사하는 기구라는 박 전 원내대표 층 입장으로 갈려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물갈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30일 쇄신연찬회 낭상토론을 통해 현 지도부가 재신임을 받았으나 쇄신과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조건부 재신임’이라는 입장을 보여 쇄신안 마련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쇄신안의 폭과 내용에 따라 지도체제를 포함해 당 전체가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 더 이상 다툴 시간이 없다”며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홍 대표가 전날 쇄신연찬회에서 거론된 영남·강남권 중심의 50% 물갈이론, 전체 의원의 당협위원장직 사퇴론에 바枢가거나 이를 뛰어넘는 공천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물갈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나라 당쇄신 극심한 진통

홍 체제 ‘조건부 재신임’ 속 물갈이론 대두

한나라당은 30일 쇄신연찬회 낭상토론을 통해 현 지도부가 재신임을 받았으나 쇄신과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조건부 재신임’이라는 입장을 보여 쇄신안 마련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쇄신안의 폭과 내용에 따라 지도체제를 포함해 당 전체가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 더 이상 다툴 시간이 없다”며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우원 의원은 악절수 서울대 응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악절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함께 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질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정도로 당 상황이 안 좋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악절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함께 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질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정도로 당 상황이 안 좋다”고 밝혔다.

노관규, 오늘 총선 출마 선언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이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노 시장은 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자신이 유치한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국비 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서는 시장으로서는 한계를 절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총선 출마시 선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업무를 보고 사퇴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임내현 변호사는 내달 3일 오후 전남대교 대강당에서 ‘내가 만난 세상 내가 배운 민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내현, 3일 전대서 출판기념회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임내현 변호사는 내달 3일 오후 전남대교 대강당에서 ‘내가 만난 세상 내가 배운 민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손큰회포차

서구 쌍촌동 1199-7번지 쌍촌kt앞
신나리회, 매기탕, 병어조림
<점심메뉴-동태탕> 회 포장 됩니다.
대표 문정매 ☎(010)2809-5673

말바우한의원

두암동 841-5 말바우소방소앞
요통, 아깨통증, 슬통증
각종 통증치료전문
원장 이용식 ☎(062)262-5275

한진열기

동구 수기동 44-1번지
사우나전기스토브제작, 홀로방찌질방
맥반석, 녹차티링시공
여관목욕탕설비전문
☎(062)232-2923

유미식당

농성동 서문교회맞은편
모범지정업소, 이동급식지정업소
한식·중식·인수류
대표 김영성·채덕심 ☎(062)369-7913

목화웨딩

동구 불로동 169-1 히링크호텔입구
웨딩미디어, 스마트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내고향바지락칼국수

서구 쌍암동 CGV사거리
보리밥+칼국수=5.000원
팥죽5.000원, 왕만두5.000원
☎(062)972-1315

메기대마왕

서구 쌍암동 CGV건너편
민물요리 전문점
대표 손주식 ☎(062)971-8287

해미정

두암동 두암시장입구 두암1동사무소앞
대구탕, 해물탕, 조기탕, 일탕, 병어조림
갈치조림, 해물사보사탕, 볶은김치찌개
해물파전, <점심특선-생태탕>
☎(062)268-7643

상무컴퓨터세탁소

상무1동 5.18 학생회관 맞은편
이불카펫, 운동화, 이웃도어, 복수, 가공카페트
기숙사침폐세탁수선전문 전화주문서 신속배달
☎(062)381-0521

오토콘보청기북광주점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 옆 소방서 건너편 2층
우리나정 오티콘 광주전문대리점
대표 이 훈 ☎(062)262-0371